

# 한중 대학생의 주거관에 대한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Housing Viewpoint between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학가\*                      조영미\*\*                      안옥희\*\*\*                      김진희\*\*\*\*  
Hao, Jia                      Jo, Young-Mi                      An, Ok-Hee                      Kim, Jin-Hee

### Abstract

Today, our lifestyle and residential culture has been changed have been changed by interchange with various countries in various sides. In order to become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residential environment designer in this environment, we must understand the housing viewpoint of residents in a country first.

Therefore, this study was intended to obtain useful material for residential environment design of both countries by comparing the housing viewpoint between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and Korean students.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205 Korean students and 193 Chinese students (Korean race) from Y University in random sampling basis.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both Korea and China have a higher ratio of apartments in both current and previous types of house. But, both Korea and China have similar ratios between detached house and apartment for a desired type of house at the time of moving in. Second,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consider <Function as a place for happiness and harmony of family> and <Function as a place for health and rest of family> as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of residence,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consider more functions of residence than Korean students. Third, both Korean and Chinese consider a living room as the most important space among housing spaces, but Chinese consider a private room more importantly than Korean. Fourth, overall satisfaction rate of Korean students for current houses was average, and most Chinese students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ir houses.

키워드 : 주거관, 중국유학생, 비교 연구

Keyword : Housing Viewpoint, Chinese Students, Comparative Study

## II. 연구방법

### I. 서론

오늘날 우리의 삶은 세계 여러 나라와 다각적인 측면으로 교류를 하고 있으며, 주거문화 또한 서로 교류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주거문화를 잘 이해한 주거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우리기업들의 중국진출이 다양한 업종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택분야의 진출은 극히 미비하고 그 성과도 매우 실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sup>. 주택은 일상상품과 달리 그 나라의 고유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주거환경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나라 거주자의 주거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 등 주거관을 파악하여 이를 계획에 적용시켜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유학 온 중국 유학생의 주거관을 우리나라 대학생의 주거관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양국의 주거환경디자인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자 한다.

\* 정희원(주저자),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석사과정.  
\*\* 정희원(교신저자),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겸임교수.  
\*\*\* 정희원,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정교수. 학술박사.  
\*\*\*\* 정희원,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석사과정.

### 1.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설문지에 의한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Y대학교의 대학생 220명과 Y대학교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한족) 200명을 무작위 표본추출하였으며<sup>2)</sup>. 자료의 처리는 불של실하게 기입된 것을 제외하고 한국대학생 205명, 중국인 유학생 19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시기는 2008년 11월이다.

### 2. 조사내용과 분석방법

주거관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는 대상자와 주거환경의 일반적 사항, 주거의식에 관한 항목, 주거의견에 관한 항목, 주거만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sup>3)</sup>되어 있다.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부실기재가 없도록 중국어로 작성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 최수웅, 중국의 주택시장 현황과 진출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p.12  
2) 연구대상인 Y대학교는 입학정원이 5천여명이다. 2008년 정규 학위과정(학부, 대학원)에 있는 유학생은 학부 490여명, 대학원 240여명이며, 이 중 중국인 유학생은 학부 470여명, 대학원 160여명이다. 본 연구대상인 중국유학생 193명은 모두 학부생이다.  
3) 중국유학생의 경우 현재의 거주하는 주거는 한국의 주택이므로, 본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이외의 항목은 중국에 있는 본인의 집에 대한 사항으로 물었다.

평균, 백분율, T-test를 하였다.

### III. 결과분석

#### 1. 주거의식

##### 1) 주거환경의 일반적인 사항

현재의 주택형태는 한국(78.5%)과 중국(81.7%) 모두 공동주택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전의 주택유형도 한중 모두 공동주택(62.1%, 62.3%)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보면, 중국이 한국보다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이사한 비율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유형태를 보면, 한국(81.5%)과 중국(87.9%) 양국 모두 자가소유가 많았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전세의 개념이 없으며, 집의 일부를 다른 세대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없었다.

##### 2) 현재의 주택에 거주하게 된 이유

현 주택에서 거주하게 된 이유를 살펴본 결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한국 대학생은 <부모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가 30.8%를 나타내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현재의 주택에서의 생활이 편리해서>, <나를 포함한 형제들의 학교문제>의 순으로 그 이유를 들고 있다. 반면 중국 유학생은 <공기가 맑고 주변환경이 좋아서>와 <부모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가 20% 이상의 비율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님의 직장 때문에>를 들고 있다.

##### 3) 주거의 기능

7개 항목 중 주거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 한중 양국 모두 <가족의 단란과 화합의 장소로서의 기능>, <가족의 보건과 휴식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1위, 2위로 들고 있어 그 경향이 유사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이 두 기능이 81.9%를 차지하여 대부분이었으나, 중국은 이 두 기능이 50.7%를 차지하였고, 이외의 기능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교육 및 가계계승 장소로서의 기능>은 한국은 1.5%에 불과하나 중국은 17.4%를 나타내었고, <부부생활과 자녀양육 장소로서의 기능> 또한 한국은 4.9%이나 중국은 16.6%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한국과 중국 유학생은 <가족의 단란과 화합의 장소로서의 기능>, <가족의 보건과 휴식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가장 중요한 주거기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 대학생보다 중국 유학생이 주거의 기능으로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주의견

##### 1) 주택에 대한 의견

주택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14항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한 빈도를 정리하였다.

80% 이상의 비율을 나타낸 항목은 한국대학생은 <가족들의 단란장소>, <몸과 마음의 휴식장소>, <반드시 내집

장만>이었으며, 중국 유학생은 <반드시 내집 장만>, <몸과 마음의 휴식장소>로 나타났다.

한국대학생과 중국 유학생의 주택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많이 나타난 항목은 <생활주기에 맞춘 이사>, <집보다 자가용 구입>, <가족들의 단란장소>, <대도시 거주> 순으로, 이들 항목은 20%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가족들의 단란장소>에 대한 한중대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부분의 한국대학생들은 집이 가족들의 단란장소이며, 집의 기능으로 가족단란장소로서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중국 유학생들은 주거의 기능으로 가족단란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한국대학생만큼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집에서의 생활시간이나 생활행위 등 생활문화적 측면에서의 후속연구를 통하여 명백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항목은 한국대학생이 중국 유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많으나, <반드시 내집 장만> 항목은 이와는 반대로 한국대학생보다 중국 유학생의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이를 통하여 한국대학생보다 중국 유학생의 내집 마련 희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주택에 관한 희망사항

주택에 관한 희망사항을 알아 본 결과, 이사 시 희망주택유형은 한중 양국 모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비슷한 비율로 선택하였으며, 한국대학생의 공동주택 희망비율이 중국 유학생보다 약간 높았다. 이는 현재의 주택유형이 공동주택이 월등히 많음을 고려할 때 양국인 모두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30평형대(39.5%)를, 중국은 50평형대 이상(36.3%)을 적당한 주택의 크기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적당한 방의 개수는 한국은 3개(평균 3.48개), 중국은 5개 이상(평균 4.44개)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하여 한국보다 중국이 더 큰 주택과 많은 방의 수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혼 후 예상 자가 구입시기는 한국은 6.41년, 중국은 2.6년으로 나타나, 한국대학생이 중국 유학생보다 자가 구입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주택을 마련하는 시기는 결혼 전 14.2%, 결혼 후 85.8%이며, 평균 10.4년 걸리므로<sup>4)</sup>, 실제로는 본 연구대상자들이 한국평균보다는 자가 구입시기가 훨씬 짧다.

##### 3) 주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간

주택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간을 선택하게 한 결과, 한국과 중국 모두 거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양국간에 약간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거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67.7%이며, 다음으로 침실이 17.2%를 나타내었으며, 이외 다른 공간은 모두 낮은 비율이었다. 반면, 중국은 거실을 1순위로 생각하나, 그 비율이 40.2%에 머물며, 침실

4)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5년.

1(21.7%), 침실2(20.1%)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즉 한국대학생은 거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으나, 중국은 거실뿐만 아니라 개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주택선택 시 고려사항

주택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 26항목에 대하여 <매우 고려한다> 5점부터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1점까지 5점 리커트도로 평가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양국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생활교육>, <건설회사>, <유지관리>, <조용, 한적함>, <친구, 친척거리>, <내부공간>, <외부디자인>, <풍치녹지대>, <방의 배치>, <사회적 지위> 항목에서  $p<.001$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베란다>항목에서는  $P<.01$ 수준으로, <안전성>, <방의 면적>, <채광, 환기>, <동네평판>항목에서는  $P<.05$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중국 유학생이 한국대학생 보다 주택선택 시 이들 항목을 더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주택선택 시 고려사항

평가항목	한국		중국		t-값
	평균	SD	평균	SD	
근린시설	3.74	.987	3.91	.936	-1.740
학 군	3.81	1.007	3.86	.987	-0.418
생활교육	3.50	1.099	3.84	1.008	-3.135***
안전성	4.51	.763	4.68	.735	-2.059*
관리비	3.85	.868	3.99	.803	-1.620
건설회사	3.65	1.016	4.32	.880	-6.320***
주차	4.17	.928	4.10	.910	0.731
유지관리	3.67	.942	4.35	.765	-7.445***
조용한적함	3.91	.987	4.36	.858	-4.414***
사생활보장	4.21	.927	4.29	.878	-.834
친구친척거리	3.12	1.015	3.68	.920	-5.556***
내부공간	4.14	.859	4.53	.662	-4.696***
외부디자인	3.87	.902	4.19	.769	-3.722***
베란다	3.77	.954	4.10	.908	-3.267**
풍치녹지대	3.85	.997	4.19	.835	-3.546***
방의면적	4.16	.763	4.35	.675	-2.449*
방의갯수	4.27	.830	4.23	.763	0.437
방의배치	4.11	.749	4.60	.723	-6.226***
내부시설	4.55	.841	4.66	.679	-1.263
교통편리	4.48	.811	4.45	.739	0.357
편의시설	4.29	.868	4.27	.849	0.259
채광환기	4.45	.767	4.61	.760	-2.049*
투자전망	3.79	1.016	3.78	.933	0.053
매매용이	3.66	1.104	3.69	1.054	0.239
사회적 지위	3.11	1.091	3.64	.953	-5.124***
동네평판	3.37	1.019	3.74	1.092	-3.239*

\* $p<.05$ , \*\* $p<.01$ , \*\*\* $p<.001$

### 3. 주거만족도

#### 1) 전반적인 만족도

현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한국은 3.48점으로 보통정도로 나타났으며, 중국은 4.17점으로 나타나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

주거환경의 세부항목에 만족도를 (표 1)의 주택선택 시 고려사항과 같은 26항목으로 알아보았다. <매우 만족한다> 5점부터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점까지 5점 리커트도로 평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양국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내부공간>, <외부디자인>, <방의 면적>, <투자전망>, <매매용이>항목에서  $p<.001$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군>, <조용, 한적함>, <친구, 친척거리>, <방의 배치>, <교통편리>, <사회적 지위>항목에서는  $P<.01$ 수준으로, <생활교육>, <건설회사>, <주차>, <풍치녹지대>, <동네평판>항목에서는  $P<.05$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중국 유학생이 한국대학생 보다 이들 항목의 만족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주거환경의 세부항목별 만족도

평가항목	한국		중국		t-값
	평균	SD	평균	SD	
근린시설	3.39	.999	3.55	.953	-1.499
학 군	3.54	1.009	3.84	.903	-3.133**
생활교육	3.42	.896	3.66	1.001	-2.302*
안전성	3.72	.983	3.83	.974	-1.008
관리비	3.35	.842	3.51	.994	-1.567
건설회사	3.30	.904	3.55	1.011	-2.502*
주차	3.34	1.161	3.57	1.023	-1.986*
유지관리	3.49	.914	3.53	1.002	-0.437
조용한적함	3.48	1.197	3.81	1.020	-2.768**
사생활보장	3.55	1.046	3.69	.979	-1.406
친구친척거리	3.31	1.043	3.67	.979	-3.336**
내부공간	3.28	.982	3.71	1.007	-3.868***
외부디자인	3.19	.942	3.62	.956	-4.356***
베란다	3.35	.958	3.46	1.091	-1.051
풍치녹지대	3.36	1.122	3.64	.982	-2.563*
방의면적	3.44	1.006	3.81	.987	-3.728***
방의갯수	3.74	1.068	3.73	1.002	0.153
방의배치	3.60	.947	3.90	.924	-3.137**
내부시설	3.94	1.070	3.90	.911	0.424
교통편리	3.50	1.306	3.88	.981	-2.961**
편의시설	3.74	1.140	3.90	.925	-1.424
채광환기	3.96	.979	3.88	1.006	0.739
투자전망	3.17	.947	3.59	.945	-4.589***
매매용이	3.19	.914	3.55	1.013	-3.650***
사회적 지위	3.30	.821	3.57	.965	-3.022**
동네평판	3.41	.807	3.60	.990	-2.091*

\* $p<.05$ , \*\* $p<.01$ , \*\*\* $p<.001$

## V. 결론

오늘날 우리의 삶은 세계 여러 나라와 다각적인 측면으로 교류를 하고 있으며, 주거문화 또한 서로 교류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주거산업 또한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주거문화를 잘 이해한 주거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 나라 거주자의 주거관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유학 온 중국 유학생의 주거관을 우리나라 대학생의 주거관과 비교함으로써 양국의 주거환경 디자인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Y대학교의 대학생 200명과 중국유학생(한족) 193명을 무작위 표본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과 현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거주이유, 주택에 대한 의식, 가장 중요한 주거기능과 주택 선택시 고려사항과 만족도 그리고 주택공간의 우선순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사 시기는 2008년 11월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주택형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율이 한국은 16.0%와 84.0%, 중국은 18.3%와 81.7%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현 주택으로 이사 오기 이전의 주택유형 또한 양국 모두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이사 시 희망주택유형은 한중 양국 모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비슷한 비율로 선택하였으며, 한국대학생의 공동주택 희망비율이 중국 유학생보다 약간 높았다. 이는 현재의 주택유형이 공동주택이 월등히 많음을 고려할 때 양국인 모두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중 대학생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한 경험이 많으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비율은 비슷하므로, 주거유형의 경험여부가 주거유형의 선호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한국과 중국 유학생은 <가족의 단란과 화합의 장소로서의 기능>, <가족의 보건과 휴식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가장 중요한 주거의 기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 대학생보다 중국 유학생이 주거의 기능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한중 양국인 모두 주택공간 중 거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 중국인은 한국인에 비해 개실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셋째, 중국 유학생이 한국대학생보다 주택에 대한 소유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대학생들은 대도시의 중심지를 더 선호하고, 중국 유학생은 대도시보다 시골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택 선택시 고려할 사항 26개 항목 중 15개 항목에서 한중대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한국대학생보다 중국 유학생들이 주택선택 시 보다 이들 항목에 대한 고려를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현재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한국 대학생은 보통정도이고, 중국 유학생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중 대학생의 주거관은 선호하는 주거유형이나 주택의 기능 등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소유나 공간에 대한 고려사항 및 만족도 등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1. 고도임, 윤복자, 박남희, 류영순(1997), 중국 용정지방 달라재 전통농가 정지간과 생활행위 조사연구, 한국주거학회지 8(3), pp.1~12

2. 김경표(1986), 중국 동북부지역 불사건축 특성에 관한 연구 - 한국 및 중국 중원지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4), pp.85~94
3. 김성우, 이원석(2001), 중국 요녕성 만주족, 한족, 조선족 민가 사이의 상호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11), pp.117~124
4. 김승제(2002), 중국 조선족 용흥촌의 마을구성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8), pp.33~40
5. 김종영(2004), 中國 延邊 朝鮮族와 漢族의 集合住宅 平面構成 比較 研究 -延吉市를 中心으로-,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5(4), pp.55~63
6. 김준봉, 김성우, 이훈, 박은정(2000), 중국 연변 조선족 전통민가의 형식적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7), pp.79~86
7. 김현지, 서희숙, 이상홍(2006), 한·중 현대 집합주거 주동형식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11), pp.143~150
8. 리광철, 이상현(2008),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한국과 중국의 아파트평면 공간구성방식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4(9), pp.37~46
9. 박남희, 고도임(1998), 중국 용정지방 달라재 전통농가 작업 행위 조사연구, 한국주거학회지 9(3), pp.119~131
10. 박창준, 한동수, 임종엽(2004), 中國 傳統公演施設의 歷史變遷과 建築特性에 關한 研究 -中國 劇場 戲臺를 中心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 pp.103~114
11. 박한철, 부척량(1999), 중국의 대학 건축교육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5(4), pp.89~96
12. 심우갑(2000), 한·중·일 집합주택 주호평면의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6(11)
13. 이왕기, 최효승(1990), 중국 고대 건축생산 기술에 관한 연구 (I) -선대시대와 현대의 건축연장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6(4), pp.105~113
14. 최수용(1997), 중국의 주택시장 현황과 진출여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 최장순, 홍대형(1998), 중국 복건성 객가족의 토루주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10), pp.165~175
16. 한필원(1997), 중국 북경 사합원의 공간구성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11), pp.193~202